

벌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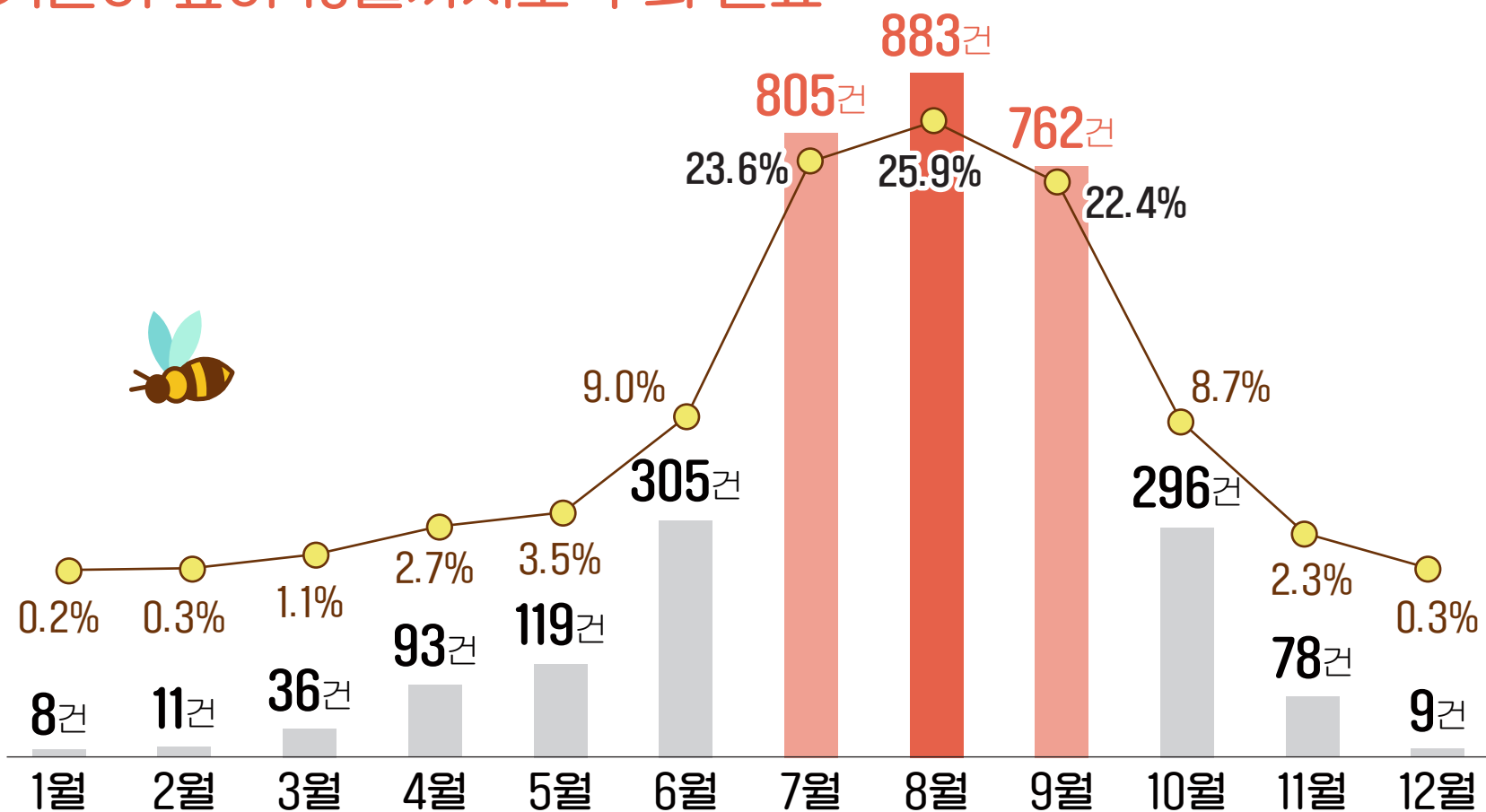
예방법



벌쏘임 발생 현황

최근 5년간('21년~'25년) 월별 발생 건수

특히 벌초, 가을 산행 등으로 7월~9월에 다수 발생하나,
기온이 높아 10월까지도 주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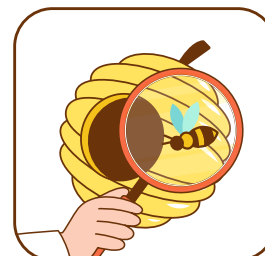


출처: 질병관리청,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3개병원 응급실 방문환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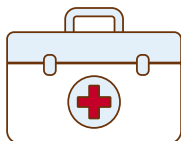
벌쏘임 예방수칙



야외 활동 전
벌쏘임 관련 안전교육 실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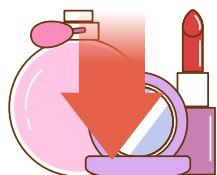
야외 활동 장소에
벌집이 있는지
사전에 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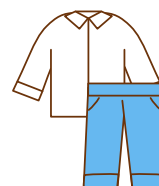
벌쏘임 사고 대처를 위한
응급 처치법 숙지 및
비상용품 챙기기



119 출동 대비를 위한
활동 장소 위치 파악하기



향수, 화장품,
헤어스프레이 자제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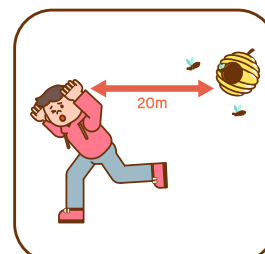


긴 옷, 긴 바지를 입고
어두운 옷보다
밝은색 옷 입기

* 공격성: 검은색>갈색>빨간색>초록색>노란색



모기약 스프레이 등을
준비하기



벌집을 건드렸을 경우
몸을 낮추고 20m 이상
빠르게 뛰기

* 벌집 근처에 있으면 벌의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아 더 위험

말벌과 꿀벌의 차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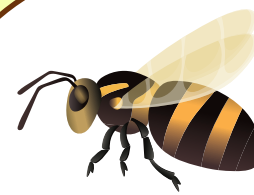
말벌



일자형으로 뾰족하여 여러 번
찌를 수 있음

먹이가 필요하면
집단으로 공격하는 등
매우 위험

특히 **장수말벌**은
미세한 진동에도
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
안전에 더욱 유의



꿀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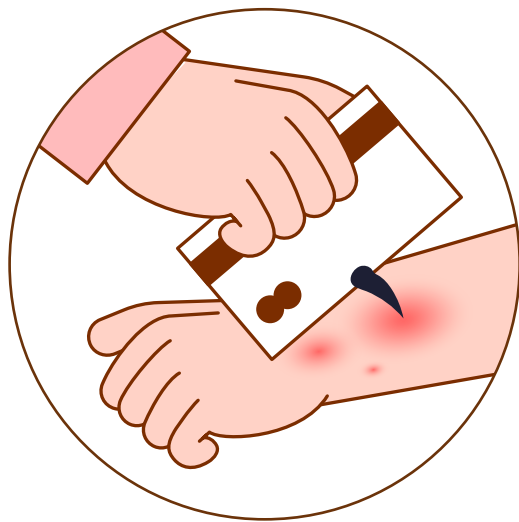
갈고리 모양으로 쏘고나면 대부분
벌침이 빠져 한 번만 찌를 수 있음

재래꿀벌(토종꿀벌)은
양봉꿀벌(서양벌)에 비해 크기가
더 작지만 **날개가 크며**
추위에 견디는 능력이 좋음

공격 받거나 이상행동이
감지되지 않는 이상
먼저 공격하지 않음

도심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벌이 존재하므로 **항상 주의 필요**

벌쏘임 응급처치 방법



신용카드 등으로
신속히 환부의
벌침 제거



얼음주머니 등
차가운 것으로
붓지 않게 하고 증상이
악화되는지 경과 관찰

손 또는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하는 것은 벌침을
짜서 벌 독이 더욱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,
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



벌쏘임 시 나타나는 증상



통증
피부 가려움
부기



식은땀
두통
구토
어지러움증
호흡 곤란
의식저하 등



사람에 따라
아나필락시스
[알레르기 과민반응]
발생

통증이 지속되거나 **아나필락시스 발생** 시
신속하게 **병원**으로 이동!



아나필락시스 증상이란?

피부

- 두드러기
- 가려움증
- 홍조
- 입술·혀·목젖의 부종

호흡기

- 코막힘
- 콧물
- 재채기
- 기침
- 쉼 목소리
- 호흡곤란
- 가슴 답답함
- 쌉쌉소리

신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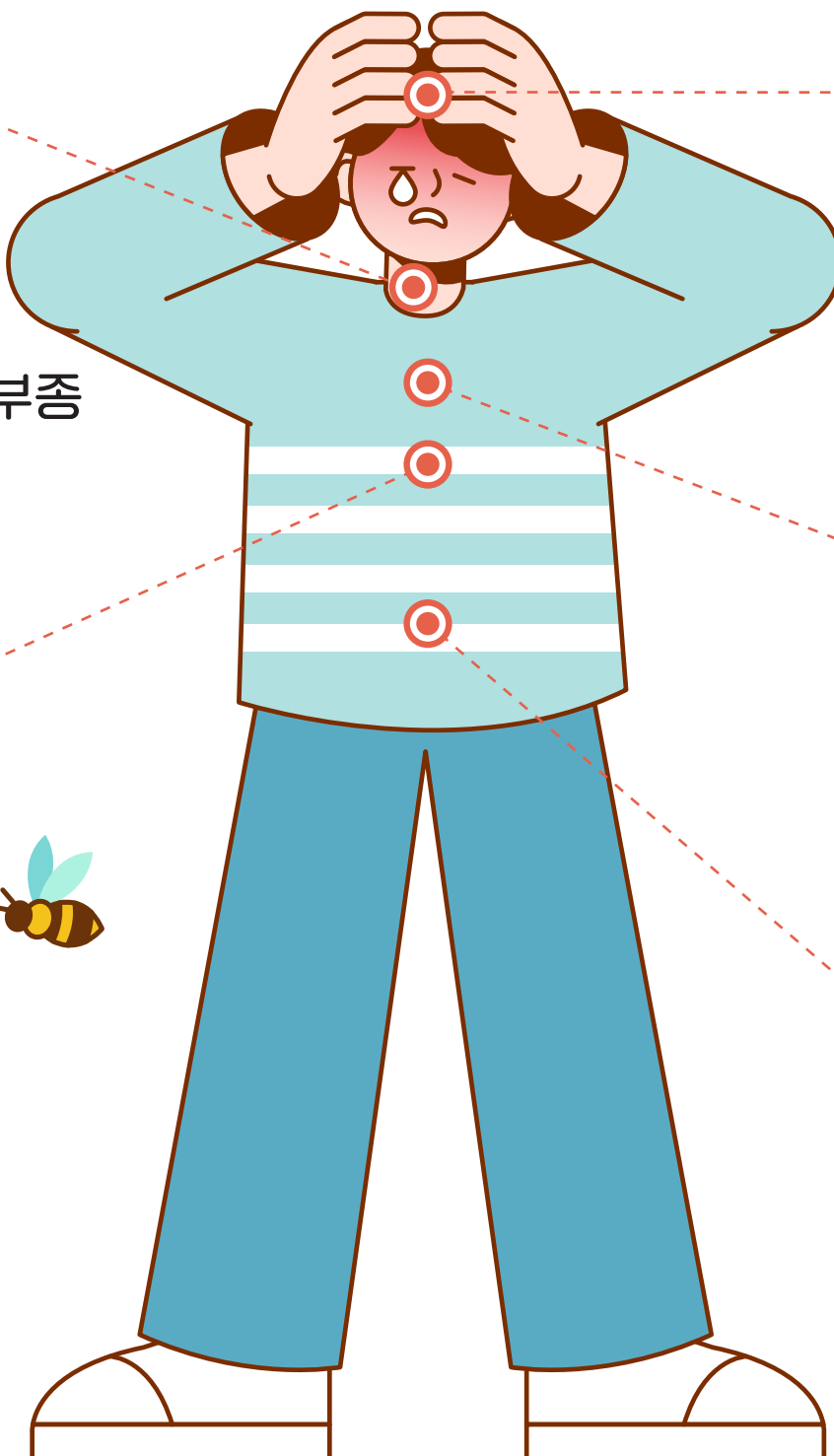
- 안절부절 못함
- 실신
- 의식저하

심혈관

- 저혈압
- 심장마비
- 빠른 맥박

소화기

- 복통
- 메스꺼움
- 구토
- 설사





**벌쏘임 예방으로
안전하고 건강한 여름
보내세요.**